

'7할 승률 사수' KIA, 안방서 압도적 경기력 보일까

30~5월2일 KT전·3-5일 한화전

지난주 4승2패... 유일 20승 고지 이창진·소크라테스 타격감 회복 '천군만마' 나성범 1군 복귀 완료 이의리 대체 선발은 여전히 고민



지난주 키움이어로 그를 상대로 싹쓸이 승리를 거둔 뒤 LG트윈스에는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안으며 7할 승률을 간신히 사수한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안방에서 열리는 6연전에서 확실한 선두 지키기에 나선다.

KIA는 30일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T위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홈 주중 3연전을 치른 뒤 다음달 3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한화이글스와 홈 주말 3연전을 갖는다.

KIA는 지난주 키움에 싹쓸이 승리를 챙기며 20승 고지에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올랐지만 디펜딩 챔피언 LG에 털미를 잡히며 21승 9패(승률 0.700)로 간신히 7할 승률을 지켜냈다. 2위 NC다이노스와 2경기 차, 3위 삼성라이온즈에 3경기 차로 쫓기고 있다.

야수진에서는 김도영과 최원준이 지난주에 이어 화려한 타격을 과시했고 이창진과 소크라테스가 길었던 침묵에서 깨어났다. 주간 팀 타율이 0.325로 두산베어스(0.3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OPS(출루율+장타율) 역시 0.825로 두산(0.886)과 KT(0.8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창진은 주간 타율 0.400(15타수 6안타)로 팀에서 가장 뛰어난 타격감을 자랑

2024 KBO리그 순위 (29일 현재)

| 순위 | 구단 | 게임 | 승 | 패 | 무 | 승률 | 승차 |
|----|-----|----|----|----|---|-------|------|
| 1 | KIA | 30 | 21 | 9 | 0 | 0.700 | - |
| 2 | NC | 30 | 19 | 11 | 0 | 0.633 | 2 |
| 3 | 삼성 | 31 | 18 | 12 | 1 | 0.600 | 3 |
| 4 | SSG | 31 | 17 | 13 | 1 | 0.567 | 4 |
| 5 | LG | 32 | 16 | 14 | 2 | 0.533 | 5 |
| 6 | 두산 | 32 | 15 | 17 | 0 | 0.469 | 7 |
| 7 | 키움 | 29 | 13 | 16 | 0 | 0.448 | 7.5 |
| 8 | 한화 | 30 | 12 | 18 | 0 | 0.400 | 9 |
| 9 | KT | 32 | 11 | 20 | 1 | 0.355 | 10.5 |
| 10 | 롯데 | 29 | 8 | 20 | 1 | 0.286 | 12 |

한 가운데 2도루까지 더하며 2타점 4득점을 생산했고, 소크라테스는 0.385(26타수 10안타)로 4타점 6득점을 뽑아냈다. 주장 나성범도 올해 첫 1군 엔트리에 등록돼 선발 출격을 대기 중이다.

이의리의 부상 이탈 공백을 메울 대체 선발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주 김건국 대신 대체 선발로 나선 황동하는 27일 LG전에서 두 개의 홈런을 허용하는 등 3.2이닝 5실점으로 고전했다. 김사운이 같은 날 2.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것이 위안이었다.

●KT, 균형 잡힌 투타
KT는 지난주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한화를 상대로 3연전을 싹쓸이한 뒤 SSG랜더스에 1승 2패로 아쉬움을 안았지만 승패 마진 +2를 챙기며 롯데자이언츠를 제치고 9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KIA는 KT를 상대로 윤영철-양현종-제임스 네일이 선발로 출격한다. 윤영철은 24일 키움전에서 6.2이닝 1실점으로 올해 최고의 컨디션을 선보였다. 양현종은 25일 키움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켈리타트 플러스를 챙기며 견제함과 과



KIA타이거즈가 30일부터 KT위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홈 주중 3연전, 다음 달 3일부터 한화이글스와 홈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2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맞대결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시했고, 네일은 26일 LG전에서 수비 불안에도 5이닝을 2자책점(4실점)으로 책임졌다.

KT는 웨스 벤자민과 원상현, 엄상백이 선발 로테이션을 돌 차례다. 벤자민은 24일 한화전에서 8이닝 1실점의 괴력투를 펼쳤고, 두 경기 연속 8이닝을 소화했다. 원상현은 25일 한화전에서 6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고, 엄상백은 26일 SSG전에서 6.2이닝을 4실점(3자책점)으로 막았지만 패전의 불운을 안았다.

KT는 지난주 투타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다. 선발 투수들의 호투를 발판으로 팀 주간 평균자책점을 3.46으로 낮췄고 WHIP(이닝당 출루허용률)은 1.04로 가장 낮았다. 팀 타율은 0.310으로 3위였

고, OPS는 0.833으로 2위였다.

●한화, 투타 모두 최악
한화는 분위기가 급격히 침체됐다. 순위는 7위에서 8위로 한 단계 하락했지만 승률이 0.400까지 떨어지며 3할 대까지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주 KT에 싹쓸이 패배를 당한 뒤 두산에도 1승 2패로 연속 루징 시리즈를 떠안았다.

KIA는 한화를 상대로 첫 경기부터 대체 선발을 가동한다. 이어 월 크로우와 윤영철이 등판할 전망이다. 대체 선발은 최근 KIA에 가장 큰 고민거리다. 김건국과 황동하가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고 이들을 제외하면 1군에서는 김사운이 유일한 후보군이다.

한화는 리카르도 산체스와 대체 선발,

류현진이 선발 등판을 준비한다. 두 번째 경기엔 문동주가 로테이션을 소화해야 하지만 지난 28일 두산전 3.1이닝 9실점, 23일 KT전 4.2이닝 5실점(4자책점) 등 극심한 부진으로 29일 1군에서 말소됐다. 산체스도 최근 견갑골 결림 증세가 있어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한화는 지난주 투타 모두 최악의 흐름을 보였다. 팀 주간 평균자책점이 9.35, WHIP가 2.12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팀 주간 타율도 0.233으로 키움(0.204)에 이어 두 번째로 침체됐고, 최강야구와 연천미라클 출신인 신인 황영목이 주간 타율 0.364(22타수 8안타)로 4타점 6득점을 생산하며 유일하게 분전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ilbo.com

광주 근대5종 학생 선수단, 회장배 선전

광주체중 이지아 2관왕 석권 남초부 단체 금·여중부 단체銅

광주 근대5종 학생 선수단이 제26회 한국학생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지아(광주체중 3년)는 여자 중등부 3종 개인전과 릴레이에서 2관왕에 올랐다.

광주 근대5종 학생 선수단은 지난 24~28일 전북 완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중은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하며 선전을 이끌었다.

이지아가 여자 중등부 3종 개인전에서 총점 847(수영 271점·레이저런 576점)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지아는 송현서(3년), 이루리(2년)와 함께 나선 릴레이에서도 총점 666(수영 248점·레이저런 418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지아와 송현서, 이루리, 한다예(1년)가 호흡을 맞춘 단체전에서는 총점 3083(수영 1004점·레이저런 2079점)으로 서울체중(총점 3132)과 부산체중(총점 3119)에 이어 동메달을 합작했다.

광주시근대5종연맹 소속 초등부 선수들도 금메달을 수확하며 힘을 보탤다.

김래은(목련초 2년)과 윤재우(은빛초 2년), 윤재민(은빛초 1년), 이하준(송정서초 1년)은 남자 초등부A(1~2학년) 2종 단체전에서 총점 1045(수영 244점·육상 801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서석중, 춘계 검도대회 단체전 준우승

결승서 부원중에 득점수로 석패

광주서석중 검도부가 제66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서석중은 지난 26~28일 경북 청송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부원중과 2-2로 팽팽히 맞섰으나 총 득점수가 4-5로 뒤져 은메달에 만

족했다. 준결승에서 동평중을 2-1로 꺾고 결승에 오른 광주서석중은 부원중을 상대로 선봉 허경도(1년)가 1-1로 비긴 뒤 2위 김태현(2년)과 중견 윤찬희(2년)가 1-0으로 이기며 앞섰지만 부장 육하준(2년)이 1-2로 패한 뒤 주장 안일웅도 0-2로 패배하며 총 득점수에서 밀렸다.

한규빈 기자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이 29일 영광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려 22개 시·군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이날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위대한 영광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이라는 구호 아래 22개 시·군 3000여 명의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참가해 골볼, 론볼, 보치아, 좌식배구 등 21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카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종합 우승

금 3 은 1 동 1... 전남체고 준우승

전남도청 카누팀이 제15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2관왕에 오른 임성화와 탁수진의 활약을 바탕으로 여자 일반부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다. 전남체고 카누팀은 남자 고등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 카누팀은 지난 24~26일 경기 하남 미사경정공원조정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여자 일반부 종합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전남도청은 탁수진이 k-1 200m에서 43초666, 임성화와 권은희가 k-2 200m에서 41초407, 임성화와 탁수진, 윤세정, 권은희가 k-4 200m에서 38초279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임성화와 탁수진, 윤세정, 권은희가 k-4 500m에서 1분45초342로 은메달, 윤세정이 k-1 500m에서 2분4초773으로 동메달을 더했다.

전남체고는 금메달 3개를 사냥하며 남자 고등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철웅이 k-1 200m에서 38초489, 박철웅과 이진솔이 k-2 200m에서 37초992, 이호준과 박태준, 김성현, 신진성이 k-4 200

m에서 38초941로 금메달을 따냈다. 삼호중도 남자 중등부에서 동메달 1개를 수확하며 전남 카누의 선전에 힘을 보탤다. 변승진과 김권호, 박상민, 김형언이 k-4 500m에서 2분6초263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병천 전남카누연맹 회장은 "전남 카누가 이번 대회에서 종합 우승과 준우승을 비롯해 다수의 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열린 전국 대회와 다가오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